

아지

삼면이 세토 내해로 둘러싸인 아지초는 고켄잔 산에서 채굴되는 고품질의 화강암으로 유명하며, 이를 아지이시라고 합니다. 인접한 무레초와 더불어 아지초는 일본에서 유명한 화강암 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도 아지이시 산업이 번성하여 약 200 명의 석공과 석재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지이시는 유명한 조각가이며 경관 디자이너인 이사무 노구치(1904~1988) 등의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도 이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지의 스톤 뮤지엄에서는 아지이시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석재를 사용한 조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인 나가레 마사유키 씨(1923~2018)는 만년까지 아지에 아틀리에와 집을 두고 아지이시를 비롯한 소재를 사용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이 공간들은 박물관으로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지초에는 아지의 화강암이 침식되어 이루어진 흰모래로 알려진 에노하마 해수욕장 등 외딴 해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켄잔 산은 인기 있는 하이킹 명소로서, 특히 유명한 시코쿠 88 성지 순례의 85 번째 성지인 야쿠리지 절을 방문하는 순례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지초는 고켄잔 산의 북쪽에 위치하며, 2006 년부터 다카마쓰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